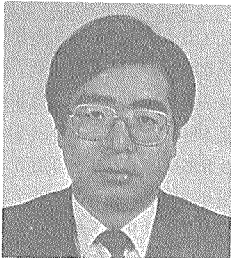


걸프戰爭이 油價 및 世界經濟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對應策



백 광 선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경제학박사

유가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제고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석유의존도를
낮춘은 물론 원유도입선의 다변화
원유비축시설의 확대 등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겠다.

1. 원유수급추이와 油價展望

금년 1월 17일 걸프전쟁발발후 당초예상과는 달리 국제유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서부 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1월 16일의 배럴당 32달러에서 다음날에는 21.4달러로 무려 10.6달러나 하락한후 현재 대체로 20달러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中東產두바이(Dubai) 油價도 마찬가지로 16일 25.3달러에서 18일에는 14.1달러로 크게 떨어진 후 현재 15~16수준을 기록함으로써 국제유가는 오히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전인 지난해 7월말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원유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당초 피해가 예상되던 사우디유전이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우세로 거의 파괴되지 않았으며, 그동안 산유국의 증산으로 국제원유수급이 공급과잉상태에 있었던데다 석유 소비마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선진 석유소비국들의 90여일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원유 비축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다 전쟁에 따른 원유공급부족을 메꾸기위해 하루 250만 배럴의 비축원유를 방출할 계획이어서 어느 정도 유전피해에 의한 유가폭등 사태에 대한 대책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작년 8월 2일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사태후 UN의 이라크에 대한 금수조치로 국제석유시장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공급분 하루 330만 배럴만큼 물량감소를 나타냈다. 그러나 석유수출기구(OPEC) 총회에서 추가생산 결의에 의해 서서히 증산되기 시작,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제외한 11개 OPEC회원국의 산유량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각각 2,270만 배럴과 2,300만 배럴에 달하므로써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감산분을 초과하여 OPEC 전체의 침공사태전인 7월의 생산수준에 달하였다. 그 뿐만 아니



금년 1월 걸프전쟁 이후에도 예상과 달리 달러화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

<表-1> OPEC의 原油生産 實績

(單位: 백만배럴/하루)

	1990. 7	8	9	10	11	12	쿼터
사우디	5.3	5.5	7.5	7.6	8.2	8.2	5.38
이란	3.0	3.3	3.4	3.1	3.3	3.2	3.14
UAE	2.0	1.7	2.2	2.3	2.3	2.4	1.50
중립지대	0.3	0.2	0.3	0.3	0.2	0.2	-
카타르	0.4	0.4	0.4	1.4	0.4	0.4	0.371
나이지리아	1.7	1.8	1.9	1.9	1.9	1.9	1.611
리비아	1.3	1.3	1.4	1.5	1.5	1.5	1.233
알제리	0.8	0.8	0.8	0.8	0.8	0.8	0.827
가봉	0.3	0.3	0.3	0.3	0.3	0.3	0.197
베네수엘라	2.0	2.0	2.3	2.3	2.3	2.4	1.945
에쿠아도르	0.3	0.3	0.3	0.3	0.3	0.3	0.273
인도네시아	1.3	1.3	1.3	1.3	1.3	1.4	1.374
小計	18.7	18.9	21.9	22.1	22.7	23.0	17.851
이라크	3.1	0.9	0.5	0.4	0.4	0.4	3.14
쿠웨이트	1.6	0.1	0.1	0.1	0.1	0.1	1.50
總計	23.2	19.9	22.5	22.6	23.2	23.5	22.491

資料: IEA, 각호.

라 북해, 멕시코 등 非 OPEC 원유생산도 작년 8월에 하루 2,800만 배럴에서 10월에는 2,900만 배럴을 생산, 하루 100만 배럴씩 증산되었다.

이와 같이 공급물량은 예상보다 원활하게 늘어난 반면, 원유수요는 유가급등, 경기둔화, 온화한 날씨 등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하루 160만 배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表-2> 自由世界 石油需給 推移 및 展望

(單位: 백만달러/하루)

	1989				1990				1991			
	I	II	III	IV	I	II	III	IV	I	II		
消費	53.3	50.3	51.2	54.4	52.3	53.7	51.4	53.1	53.7	53.0	54.1	51.0
OECD	38.6	36.1	36.5	39.3	37.6	38.4	36.6	37.8	38.1	37.7	38.4	35.8
開發國	14.7	14.2	14.7	15.1	14.7	15.3	14.8	15.3	15.6	15.3	15.7	15.2
供給	50.7	51.6	52.8	54.3	52.4	54.2	54.0	52.4	53.9	53.6	-	-
OPEC	20.1	21.1	22.2	23.7	21.8	23.7	23.6	21.9	23.0	23.0	-	-
非OPEC	28.7	28.5	28.6	28.7	28.6	28.6	28.6	28.6	29.1	28.7	28.5	28.8
NGL	2.0	2.0	2.0	1.9	2.0	1.9	1.9	1.8	1.9	1.9	-	-

資料: IEA, 각호.

초기 공급물량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투기현상으로 지난해 10월 한때 배럴당 40달러에 달하기도 했던 국제유가는 공급물량의 증가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자 지난 12월부터는 30달러 이하로 하락하기 시작, 점차 안정세를 나타냈다.

금년 1월 걸프전쟁 발발직전에 중동유전에 대한 피해우려로 한때 다시 30달러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이미 충분한 비축물량의 확보와 유시장에서의 공급과잉상태에 있는데다 유전에 대한 피해가 거의 없어 원유수급에 대한 차질이 예상되지 않아 유가는 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걸프전쟁은 다국적군의 제공권확보와

아바도적인 전력우세로 전쟁발발후 2~3개월내 이라크를 제압, 사우디유전에 대한 피해없이 끝날 것으로 보여 금년의 국제유가는 작년하반기에 비해 크게 안정되어 OPEC 평균유가기준으로 대체로 배럴당 19~2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 사우디유전에 대한 큰 피해없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점차 석유에 대한 비수기로 접어들어 수요가 성수기에 비해 하루 300~400만 배럴 정도 감퇴하는 반면 공급은 과잉상태에 있어 상반기 중 OPEC 평균유가는 배럴당 15~16달러 수준을 유지하다 하반기에 가서는 OPEC의 원유공급 과잉으로 인한 유가폭락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고 동절기 원유성수기를 맞게 됨에 따라 유가는 20~21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우려되는 바와 같이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대해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서 시리아, 요르단이 이라크를 지원, 중동전으로 확대되어 상당한 정도의 사우디유전이 파괴될 경우, 복구하여 정상가동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제유가는 일시 급등할 것이나 석유비축물량의 방출 등으로 점차 안정되어 금년 중 평균 25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 세계경기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당초 세계경제는 1989년에 연착륙(Soft-Landing)에 성공함에 따라 작년에 경기 하강국면이 최저점에 달한 후 금년에는 경기가 회복되어 견실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였으나 미국경제가 크게 침체, 저조한 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유가가 급등함으로써 경기회복은 금년 하반기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행히 작년에는 경제규모가 크게 늘어난 일본과 독일경제가 경기 확대국면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산업구조 조정에 힘입어 유가상승의 영향을 덜 받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90년의 성장률은 '89년의 3.5%보다 크게 낮은 2.4%를 기록할 것

으로 추정된다.

금년에는 미국의 성장이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 일본과 독일의 경기가 금융긴축 기조강화로 다소 둔화됨에 따라 선진권경제의 성장은 금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작년에 크게 둔화된 개도권의 성장이 유가안정에 힘입어 금년에 회복될 것으로 보여 작년보다 다소 낮은 2.3%를 기록, 최저점에 달한후 세계경기는 내년부터 점차 회복하여 2.8%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세계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각국간의 경제여건 및 조정능력의 차이로 인해 미·영은 앵글로색슨(Anglosaxon) 경제권은 경기침체국면에 진입하였고 일본과 독일 등 무역흑자국은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등 세계경제성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선진국의 성장동조화 현상은 퇴색되고 있다.

다음 국제환율의 움직임을 살펴 보면 달러貨는 작년 상반기에 독일 마르크貨 등 유럽통화에 대해서는 약보합세를 보였으나 일본 엔貨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줄곧 강세를 보여 3월말에는 달러당 157.8엔, 4월말에는 160엔선까지 치솟는 등 폭등세를 나타냈다. 하반기에 들어서서 달러貨 가치는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재정

〈表-3〉 1991년 世界經濟 展望(KIET)

(單位 : %)

		世界	先進國	美國	日本	獨逸 ¹⁾	프랑스	英國	開發國
經濟成長率 ¹⁾	1989	3.5	3.4	2.5	4.9	4.0	3.6	2.7	4.0
	1990	2.4	2.5	1.0	5.5	3.7	2.8	1.5	2.2
	1991	2.3	2.1	1.1	3.9	3.2	2.3	1.2	3.8
失業率	1989	-	7.1	5.3	2.3	7.9	9.4	6.4	-
	1990	-	7.1	5.6	2.1	7.0	9.1	5.8	-
	1991	-	7.2	6.2	2.2	8.5	8.8	6.2	-
消費者物價 上昇率	1989	-	4.8	4.8	2.3	2.8	3.6	7.8	-
	1990	-	5.0	5.5	3.0	2.8	3.2	9.5	-
	1991	-	4.5	4.5	2.7	3.2	3.0	6.7	-
貿易伸張率 ²⁾	1989	7.3	7.0	5.8	7.8	7.1	8.0	7.8	8.6
	1990	5.9	6.1	3.5	6.5	8.0	7.0	4.0	5.0
	1991	5.5	5.0	2.5	5.0	8.5	6.0	3.5	7.3

註 : 1) 美國, 日本, 獨逸은 實質GNP, 나머지는 實質GDP 成長率.

2) 輸入物量基準

3) 1991년부터 統獨基準

적자 감축안 마련을 둘러싼 미 의회와 행정부 간의 마찰과 논란속에 큰폭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8월초 이후의 유가폭등 사태는 1, 2차 석유파동시와는 달리 달러貨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달러貨는 엔貨 및 마르크貨에 대해 3/4분기동안에만 각각 10.8%, 6.9%나 하락하였다. 4/4분기에 들어서도 달러貨는 미국이 경기진작을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통화에 대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년 1월 걸프전쟁 이후에도 예상과 달리 달러貨 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것은 첫째, '90년 하반기이후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미국으로 유입되었던 투자자금이 일본 및 EC지역으로 이탈하였고 둘째, '89년이래 美聯準(FRB)은 금리를 완만하게 하향조정해 온 반면, 일본과 독일 등은 오히려 금융긴축을 강화해 온 결과, '90년 하반기부터는 미·일간, 미·독일간 금리가 역전됨으로써 달러貨 및 달러화표시 금융자산매입이 격감하고 있는데다 세째, 작년의 유가상승이후 미국경제가 일본과 독일 등에 비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달러貨는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일본 엔貨 등 주로 통화에 대해 약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경기전망이 유가상승 등 여파로 인해 일본과 독일 등에 비해 불투명한 데다가 인플레이를 감안한 실질금리도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1.5~3%포인트 낮은 2.5%안팎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G7국가들도 달러貨 약세가 선진국간 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달러당 120 엔선이하로 폭락하지 않는한 선진국들이 달러貨 매입을 통해 시장개입을 재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결과, 달러貨는 금년 상반기중에 실효환율 기준으로 작년말에 비해 약 1.5~2.0% 추가절하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이후에는 안정적인 유가에 힘입어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의 긴축

<表-4> 換率·金利·油價 展望(KIET)

(單位: 年率, % 달러/베일)

	1989	1990	1991				
			I	II	III	IV	
¥ / \$	143.4	131.0	127.0	125.0	130.0	135.0	135.0
D M / \$	1.698	1.500	1.480	1.450	1.500	1.530	1.530
聯邦資金金利	9.57	7.25	7.00	7.25	7.25	7.25	7.25
유로달러金利(3개월물)	8.38	7.70	7.70	7.80	7.90	8.10	8.10
美國프라임레이트	10.5	9.75	9.75	9.75	9.75	10.0	10.0
W T I 油價	19.6	24.7	-	-	-	-	23.0
Dubai 油價	15.6	19.1	-	-	-	-	18.9
OPEC 現物油價	16.5	21.8	-	-	-	-	20.2

註: 1) 換率, 金利는 期末基準, 油價는 期間平均基準인.

기조완화, 미국의 무역수지개선과 점진적인 경기회복으로 달러화는 주로 통화에 대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금년말에는 달러당 135엔, 달러당 1.53마르크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 우리의 대응책

금년도 세계경제가 비록 불황에 빠지지는 않으나 성장의 최저점에 이르러 경기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경제의 대외적 여건은 다소 불투명하다.

다행히 금년에는 점차 유가가 안정되었지만 작년의 유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진정을 위해 금융긴축정책의 지속으로 금년 중 선진제국의 내수는 작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보여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여건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 적극적인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자본재 및 중간재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는 물론 중국, 소련, 동구 등에 대한 수출을 확대해야 하겠다.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달러貨에 대한 엔貨 약세로 일본 시장자체는 물론 미국, EC시장 등에서 우리의 수출주력 상품인 자동차, 전자, 섬유,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낮아져 우리의 수출이 크게 부진했는데 다행히도 걸프 사태에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 엔貨 가치가 크게 절상됨에 따라 현재 우리 원貨의 엔貨에 대한 환율은 지난해 연초에 비해 15~1

6%정도 절하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년 중에는 우리상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져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으로 차제에 우리상품의 기술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여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일 것이다.

아울러 한·미간 통상마찰, EC경제통합,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재개 등으로 야기될 통상환경의 악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확립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상품의 수출신장확대를 위한 토대를 굳건히 함으로써 향후 수출과 제조업에 의해 뒷받침된 견실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걸프사태에 따른 유가급등의 경우에도 경험하듯이 유가의 불안정은 과거 1, 2차 오일쇼크에 비해서는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세계 및 국내경제의 순조로운 안정성장에 큰 장애를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유가상승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산업구조 조정,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제고 등을 통해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석유의존도를 낮춘은 물론, 원유도입선의 다변화, 원유비축시설의 확대 등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